

건축 +

정카피의 광고 이야기

P. 185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Our country, the country that only belongs to us

영화 속 건축이야기

P. 190

새로운 채널로 만나고 경험하는 건축들

Constructions, encountered and experienced on a new pathway

디자인 스토리

P. 194

운칠기삼(運七技三)

A little bit of skill and a lot of luck

세무컨설팅

P. 196

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법률이야기

P. 198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능과 한계

A function and limit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건축계 소식

P. 208

통계

P. 212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Our country,
the country that only belongs to us

글. 정이숙
Jeong, Yisuk
카피라이터

남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국토의 남쪽 끄트머리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이었다.

나는 차창 밖에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는 먼산을 바라보다가,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기도 하고.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이런 구슬픈 노래를 듣기도 하였는데... 고작 두어 시간 열차 칸에 갇히는 구속이 달콤해, 건너 편 낯 모르는 수인(囚人)의 열차 탈출 시간이 궁금해지기도 하더라.

철철철 철 기차 바퀴가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찻잔 속의 삶은 국수 찬물에 행구는 소리를 시로 적은 문태준 시인의 마음을 가능하다가, 예라 모르겠다! 오송이 라거나 익산이거나 하는 한 번도 디더본 적 없지만 익숙한 이름의 역전 가난한 여인숙에 찾아 들어 그 여인숙 지키는 노파와 새벽 이숙하도록 막걸리나 마시는 공상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그네의 마음이 되어 태평염전에 닿았다. 태평염전은 증도를 우리나라 최초의 솔로 시티로 만든 여의도 두 배 크기, 140만 평 규모의 천일염전이다. 눈길 닿는 곳마다 바다와 풀과 하늘과 구름이 넉넉하게 펼쳐져 있었다. 소금 수확을 끝낸 염판이 반듯하게 누워있고, 오래된 소금창고가 세월을 이고 서있었다. 칠면초와 함초가 갯벌에 만들어 놓은 붉은 물결은 봄꽃처럼 환했다. 오래 전에 보았던 대한항공의 영상광고가 떠올랐다. 그 광고의 배경이 바로 내가 서 있는 태평염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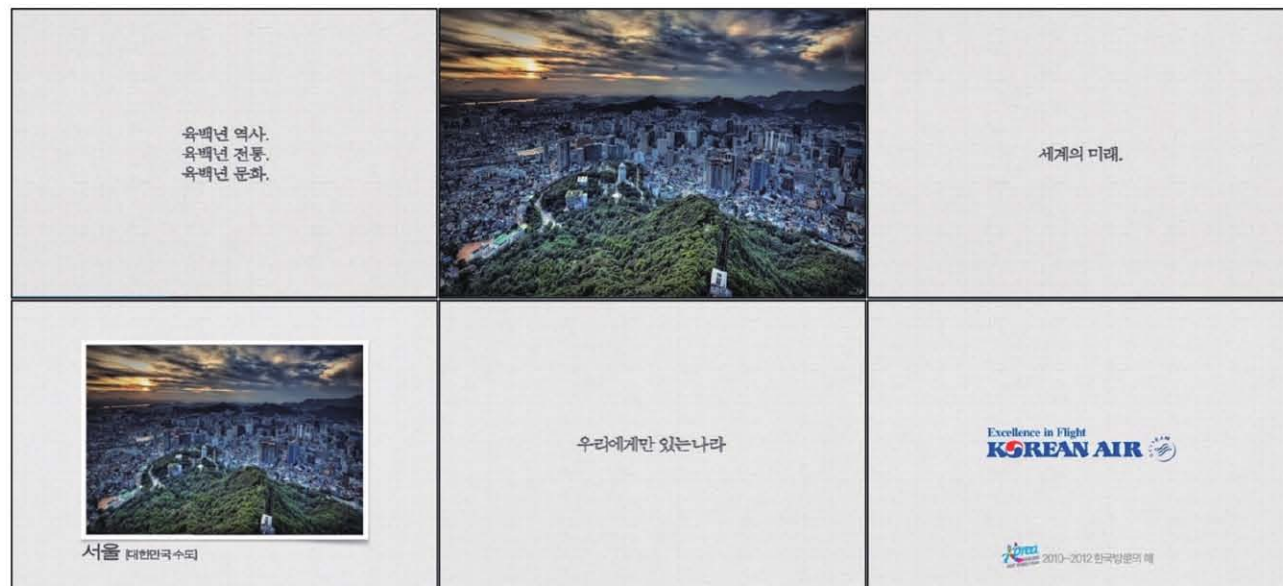


자막) 바다에 담아, 햇볕에 덮어두고,
바람으로부터 얻다.
하늘 빛깔 소금.
염전(신안)
우리나라 /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Na)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염전 편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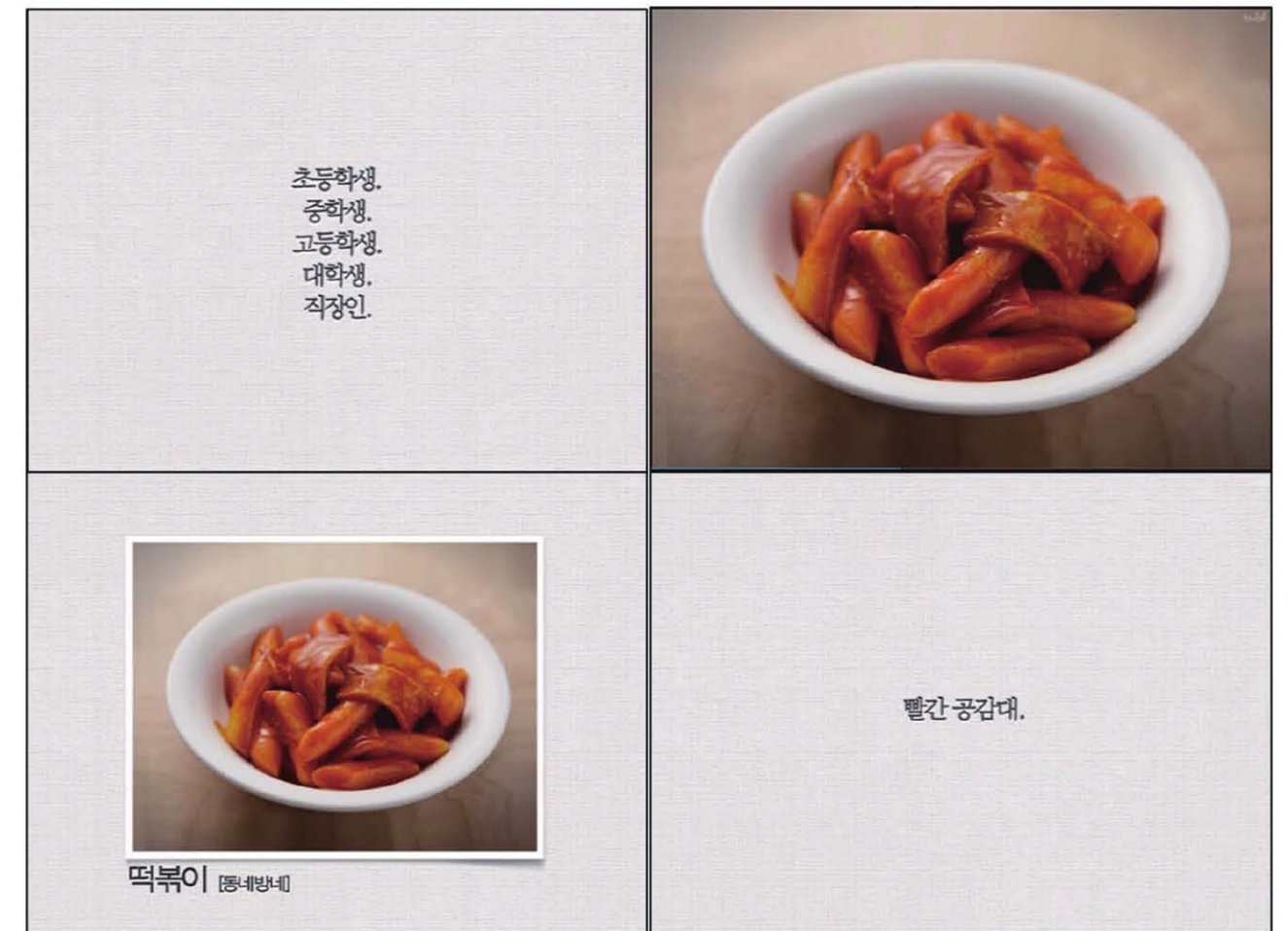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2011년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외국 취향지 광고 대신 '한국 캠페인'을 시리즈 광고로 만들어 방영했다. 성산일출봉, 대나무 숲 등의 자연과 경복궁, 단청, 탈춤처럼 한국적 미가 듬뿍 배어 있는 명소나 문화유산이 TVCM의 소재였다. 동시에 '당신만의 대한민국을 자랑해 주세요'라는 콘셉트로 고객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고객이 직접 고르고 문안을 적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선정해서 CF로 활용한 것이다. 사람들은 논산훈련소, 나의 가족, 돌잡이 등을 우리에게만 있는 자랑으로 뽑아 응모했다.



자막) 육백년 역사.
육백년 전통.
육백년 문화.
세계의 미래.
서울(대한민국 수도)
우리나라 /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Na)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서울 편_2011



자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빨간 공감대.
떡볶이(동네방네)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Na)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떡볶이 편_2011



자막) 너의 이름 대신,
아들이!
외쳐본다.
2년 금방 간다!
논산 훈련소(채우리님의 자랑)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Na)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논산 훈련소 편_2011

대한항공의 '한국 캠페인'은 3개월간 80편이 넘게 제작되고 방영되었다. 1주에 무려 7편씩 소재를 개발해 온에어시킨 세미나 캠페인을 진행한 대행사의 기획이나 제작팀이 무척이나 힘들었겠지 싶다.

강진 청자축제, 목동 야구장, 순천 하늘, 함양, 반곡지, 올레길, 다락논, 남사당패, 대공원, 청보리밭... 당시 캠페인의 소재가 되었던 장소를 하나씩 읽어 본다. 못 가본 장소, 경험 못 한 볼거리가 더 많다. 한 달에 한 곳씩 찾아 간다고 해도 10년은 거뜰히 채울 수 있는 목록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여행길은 막혔지만,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새롭게 더 눈에 띈다. 든든하다.

태평염전에서 밤이 깊었다. 가로등도 네온사인도 없는 섬, 달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산책로를 걸었다. 나무 데크로 조성해 놓은 산책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보았다. 까만 밤하늘에 단추 같은 별이 촘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나 소리내 불러보곤 했던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자리가 보였다. 별뿔별이 떨어졌다. 몇 년 만에 본 별뿔별이던가! 소원을 빌 새도 없이 눈깜짝할 순간이었지만 올해 받을 행운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그 어느 해보다 아쉽고 안타깝게 한 해가 간다.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던 사람과 장소가 셀 수 없이 많다. 팬데믹이 끝나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고에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태평염전에서 만난 단단한 천일염 알갱이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 증도의 갯벌 때문에, 우리 하늘 내 머리 위에서 떨어져 준 별뿔별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을 위로 받은 기분이 되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우리 나라'에 살고 있으니, 12월을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래 얼굴 못 본 옛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라도 써야겠다.

만나지 못 했지만 잊은 건 아니라고...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진다.



태평염전 낙조전망대에서 바라본 염생식물원과 염전의 모습

<https://play.tvcf.co.kr/108318>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염전 편_2011_tvcf링크

<https://play.tvcf.co.kr/106810>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서울 편_2011_tvcf링크

<https://play.tvcf.co.kr/109800>

대한항공_기업PR_TVCM_우리에게만 있는 나라_떡볶이 편_2011_tvcf링크

<https://play.tvcf.co.kr/110354>



정이숙 카피라이터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카피라이터로 광고와 인연을 맺었다. 롯데그룹의 대홍기획을 시작으로 한화그룹의 한컴, 중근당의 벨컴과 독립 광고대행사인 샴페인과 프랜티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로 일했다.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의 CD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응답하라 독수리 다방>(2015), <광고, 다시 볼>(2019), <똑똑, 성교육동화>시리즈(2019) 12권, <김민준의 이너스페이스>(2020)가 있다. abacaba@naver.com